

전남 해상풍력 '먹구름'...세계 최대 터빈 기업 투자 보류

베스타스, 세계 시장 침체에 목포에 터빈공장 건설 투자 보류 신안 일대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신항 활성화 걸림돌 우려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목포에 터빈 공장을 짓는 것을 보류했다. 전남의 핵심 현안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지역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진행된 지난 18일 '목포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체 모집(입찰)'을 마감한 결과, 응찰한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특히 목포 신항만에 터빈 공장 설립을 결정할 베스타스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남도 안팎에서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하다.

전남도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베스타스가 입찰에 응할 경우 협조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베스타스 경영 사정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최대 기업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주한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덴마크 현지로 가 베스타스, 머스크, 목포시 등과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까지 체결했다.

당시만 해도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3000억 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 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하고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했었다.

앞서 베스타스는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산업부의 투자신고식을 통해 한국에 3억 달러(약 3900억원)의 투자를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 유치 성과로도 알려졌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직격타를 맞게 됐다.

베스타스측은 입찰 전부터 여러 차례 전남도와 공장 착공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입찰 불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공급망 차질, 정책 불확실성 등이 맞물려 해상풍력 터빈 발주 물량이 떨어지는 등 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베스타스는 폴란드 터빈조립 공장 구축도 연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타스가 목포신항 공장 설립을 늦춘 데 따라 전남도 핵심 현안으로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에 추진 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베스타스는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중 신안 우이 해상풍력발전(발전사 한화건설·400MW), 완도 금일 해상풍력발전(남동발전·600MW) 사업의 터빈 우선공급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였다.

이들 사업 외 나머지 풍력발전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의 전남 유치 등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다.

2025년까지 해남군, 대한조선주식회사 등과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산단 지원 향만을 개발하는 구상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해상풍력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에 세계적 풍력 기업이 터빈공장을 설립하는 만큼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전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남도도 아쉬움이 역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중인 베스타스 회장과 만나 공장 건립 등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참여 업체들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태국·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국·프랑스·멕시코 8개국에서 초청된 해외바이어 18개사와 광주업체 50개사가 참여했으며, 139건의 수출 상담 실적을 냈다. (광주시 제공)

전남 갯벌 천일염 우수성 세계로 알린다

11월 1~3일 한강공원에서 소금박람회

전남도가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국산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24년 소금박람회를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랜드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6번째인 소금박람회는 전남도와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 주최한다. 전남은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천일염 생산의 보고지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그 가치와 위상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내 홍보관 및 직거래 부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과 보고, 먹고, 사고, 쉬고, 즐기는 오감만족 체험이 가능하도록 야외에서 소비자를 맞이한다.

또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전남 세계김밥페스티벌과 함께 추진, 전남의 천일염과 김, 정정 수산물의

가치를 함께 알려 홍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람회는 주제존, 힐링·체험존, 오락존, 3개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주 전시관인 주제존은 천일염의 역사를 연도별로 구성한 천일염 역사관과 천일염 생산지 홍보관을 운영하며, 생산·가공업체 현장 판매가 이뤄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준비했다. 힐링·체험존은 천일염 치유실터, 천일염 소금 사우나, 천일염 족욕 체험 등 천일염을 활용한 웰빙 체험 행사를 통해 다양한 힐링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천일염 염전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체험존과 소금을 테마로 한 천일염 카페를 운영해 소금커피, 소금빵을 이벤트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오락존에선 소금 데드리프팅 게임과 이벤트, 스탬퍼 게임, 소금밭 어린이 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치 먹으면 살 빠진다...임상시험으로 첫 검증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항비만 효과 인체적용시험...장내 유익균 증가 등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가 체지방 감소와 항비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체지방을 줄여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퍼서널 푸드(Journal of Functional Foods, IF 3.8)' 10월호에 게재했다.

김치연구소는 세포 및 동물실험에 이르는 '전임상시험'부터 대규모 코호트 자료 기반의 영양역학 분석을 거쳐 최근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김치의 항비만 효과에 관한 과학적 검증을 완료했다.

김치연구소는 김치의 항비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동물실험 연구 결과 등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특히 2022년 12월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Food Research International)'을 통해 김치가 비만 생쥐의 체지방을 31.8%나 줄여준다는 결과를 발표,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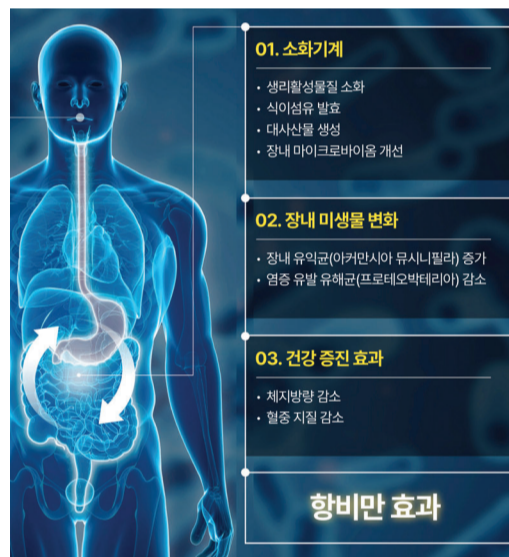
또 지난해 12월에는 성인 5만8290명을 대상으로 김치 섭취와 체중 감소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코호트 조사를 진행해 김치를 매일 2~3회(50g/회) 섭취군의 체지방지수가 1회 미만 섭취군에 비해 15% 정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중년 남성은 김치를 하루 1~3회 섭취할 경우 비만 발병률을 12%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코호트 연구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해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다. 김치연구소는 이어 부산대학교병원 신명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동물과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성인남녀 90명(BMI(체질량지수) 23~30 kg/㎡의 과체중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임상시험 대상자들은 배주김치(2주 동안 4℃에서 발효)를 동결건조해 김치분말 제형으로 만든 캡슐을 하루에 끼니 당 3캡슐씩(1일 김치 섭취량 60g 기준) 3개월 동안 섭취했는데, 김치섭취 그룹에선 체지방률이 2.6% 감소한 반면 김치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4.7% 증가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소의 설명이다.

특히 김치 섭취자들은 장내 유익균으로 알려진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증가하고, 비만



과 관련한 '프로테오박테리아'의 개체수는 감소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장해춘 소장은 "전임상부터 임상시험까지 김치의 항비만 효과를 체계적으로 밝혀냄에 따라 김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 건강 개선, 면역증진, 항암 효과 등 김치의 건강 기능적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 경신

3분기까지 5억7523만달러

김·전복·미역 등 경쟁력 입증

지난 9월 말까지 전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5억752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한 것이다.

같은 시기 연도별 수출액은 2021년 3억9350만 달러, 2022년 4억2167만 달러, 2023년 4억7284만 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증가는 전남에서 생산하는 김, 미역, 전복 등 수산물과 쌀, 배, 유자차 등 고품질 농수산물에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남산 김은 2억7511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42.2%나 늘었다.

전복은 3273만 달러, 미역은 1822만 달러로 일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요가 크게 늘었다. 쌀은 2895만 달러, 유자차는 1857만 달러, 배는 818만 달러로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농산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